



# 이경해 열사 그는 누구인가?

## 故 이경해 열사 걸어온 길

- 1947년 전북 장수군 장수읍 출생
- 1960년 장수 초등학교 졸업
- 1963년 전주 서중학교 졸업
- 1966년 전주 농림고등학교 졸업
- 1974년 서울농업대학교 졸업
- 1974년 장수읍에서 서울농장 설립(1만여평)
- 1981년 장수애향 운영위원 및 영농학생 영농정착 지도위원
- 1982년 영농후계자 선정(농업계 학부 출신 100여명 농업후계자 선정)
- 1983년 장수군 낙우회 회장
- 1987년 전북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
- 1989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2대 회장)
- 1990년 한국농어민신문 초대회장
-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특별위원
- 스위스 제네바 UR반대 할복 자살 기도



1991년 전라북도 도의원

서울 동국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수료

1992년 중앙연수원 교수

1993년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 위원

1994년 한국내외문제연구회 전북 사무국장

UR협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17일간 단식농성

1995년 전북도의회 산업위원장(2선)

농협중앙회 운영자문위원

농협중앙회기선정한 대한민국 건국 50년 농업계 50인에 선정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농어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999년 제3차 WTO 각료회의가 진행된 시애틀에서 세계 NGO단체와 함께 WTO반대 투쟁 전개

2000년 전라북도의회 외교활동운영 협의회장(3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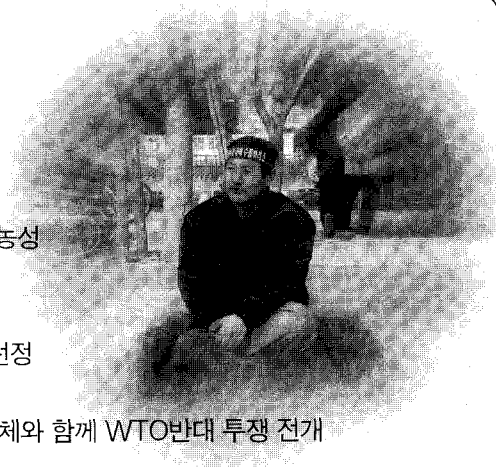
농기부채 특별법 제정과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촉구하며 26일간 단식농성

2001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일본 도교 총리관저 항의 단식 농성(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항의하며 17일간 단식농성)

2002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앞 1인 단식농성

“이제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서한 WTO본부에 전달



## 주요수상

1980년 청소년유공지도자 표창

1981년 전라북도낙농진흥공로 표창

1982년 영농후계자 육성공로 표창

1983년 제3회 새마을 청소년 대상

1985년 산업포장(대통령 포장)

1986년 장수군민의장 수상

장수군 도민의 상 수상

1988년 FAO(국제연합 식량기구) 세계의

농부상 수상

전라북도 영광의 얼굴 수상

전라북도 애향장 수상

1989년 농어민후계자 발전 공로 공로패

1995년 자랑스런 시립대인 상

지난 9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로 타전된 비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WTO Kills Farmers”를 외치며 자결한 이경해 열사의 의거는 WTO를 반대하는 전세계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제5차 WTO각료회가 WTO를 비롯한 강대국 중심의 일방적 무역질서 재편에 제동을 거는 전 세계적 파문을 가져왔다.

고 이경해 열사는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가 전세계민중들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을 대변하며, 농민을 비롯한 정치·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WTO가 농민을 죽인다고 고통 받고 있는 전세계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리고 분노를 대변하며, 전세계농민 연대운동의 힘이 되었다.

## 이경해 열사서거 알지

2003년 9월 7일(한국시간)

- 한농연과 전농을 비롯한 전국농민연대 소속 「WTO 제5차 각료회의 저지 농민참가단」 124명,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멕시코 칸쿤으로 출발
  - 故 이경해 열사는 개인자격으로 칸쿤투쟁단 참가
- 출발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 개최
  - 기자회견에서 농민참가단은 「WTO는 세계각국의 부의 증진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균형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 소수 초국적자본, 다국적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다」 고 지적하고, 「WTO는 농축산물의 상품시장을 강요하며, 각국 농업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을 부정하고 식량주권마저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개발도상국의 중소농은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있고 부채에 신음하면서 농사지를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족농업의 희망을 찾을 수 없으며, WTO체제에서는 농민이 마음놓고 농사지를 권리도, 농업과 인류의 미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WTO농업협상을 중단시키기 위해 세계농민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03년 9월 9일

- 농민참가단 멕시코 칸쿤에 도착. 농민참가단을 비롯한 한국칸쿤투쟁단 투쟁 선포식 개최
- 농민참가단 상여시위 전개

2003년 9월 10일

- 故 이경해 열사 '전세계 농민 공동행동의 날' 시위 도중 「WTO가 농민을 죽인다(WTO Kills Farmers)」를 외치며, WTO 신자유주의의 의한 농업시장 개방에 항의 자결
  - 고 이경해 열사 '헤수스 크라떼 로드리게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수술
  - 농민참가단 故 이경해 열사 자결 장소에서 천막농성 시작
- 제5차 WTO 각료회의의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

2003년 9월 11일

- 故 이경해 열사 과다 출혈로 인하여 사망
- 故 이경해 열사의거와 서거 소식 외신을 통하여 전세계로 타전되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WTO 5차 각료회의 및 세계 NGO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함
- 한국칸쿤투쟁단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WTO가 한국농민을 죽이고 한국농업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 이 전 회장은 죽음으로 보여주었다」 며 「이경해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WTO 협상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세계 70여개국국이 가입한 비아캄페시나를 주축으로 칸쿤시내에서 대규모 가두 시위 전개
  - 세계 각국의 농민 수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며 경찰과 대치
- 각료회의의 개막식장에서 세계 NGO회원들 50여명 WTO 반대 기습시위
- 한국투쟁단 상황실에 빈소 마련
  - 각국의 농민 및 NGO회원들 조문

2003년 9월 12일

-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황두연 교섭본부장 빈소 방문
  -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협상을 이끌어 달라」는 농민연대의 주문에 황두연 교섭본부장은 「이번 각료회의가



- 중요하지만, 자살을 했다고 해서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강경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 국제농민조직 비아캄페시나, NGO단체들 등 故 이경해 열사 추모 기자회견 및 추모식 개최

2003년 9월 13일

- 천막농성장이 차려진 칸쿤시내에서 故 이경해 열사 추모 촛불집회 개최
  - 9.11테러 22주년 기념 군사주의 희생자 추모대회가 끝난후 참석자들도 합류

2003년 9월 14일

- 故 이경해 열사 유가족(막내딸 이지혜씨, 동생 이영신씨, 사위 김정훈씨) 멕시코 칸쿤에 도착
- 세계 국제공동 행동의 날 행사 개최
  - 전세계 농민, 노동자, 시민은 각료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놓은 바리케이트를 걷어내고 WTO화형식 거행
  - 한국칸쿤투쟁단이 국제공동의날 행사를 주도적으로 이끌
- 한국칸쿤투쟁단 20여명 본회장 진입 시도
  - 경찰병력에 에워싸인 채 2시간가량 연좌시위

2003년 9월 15일

- 故 이경해 열사 추도식, 세계농민장으로 멕시코 칸쿤에서 거행
  - 같은 시간 한국 170여개 분향소에서 동시에 추도식 거행
- 제5차 WTO각료회의 결렬

2003년 9월 16일

- 故 이경해 열사 운구, 유가족들과 함께 멕시코 칸쿤에서 출발

2003년 9월 18일

- 이경해 열사 유해 인천공항에 도착
  - 500여명의 농민들이 인천공항에서 이경해 열사 운구를 맞이함
  - 운구는 한농연 회관을 거쳐 서울 아산병원 빈소로 옮겨짐
-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故 이경해 열사 빈소를 찾음
- 경북 성주에서 고 이경해 열사 추모집회 도중 박동호 농민 분신
  - 성주 세강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상태가 심각해 영남도 병원으로 이송됨

2003년 9월 19일

- 「故 이경해 열사 정신 계승 WTO반대 범국민 촛불집회」가 농민·학생·노동자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개최

2003년 9월 20일

- 고 이경해 열사 영결식 및 장례식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농민과 시민들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
  - 장례이후 청와대로 향하는 장례행렬에 경찰 무차별 폭력진압으로 유가족 및 농민 50여명이 크게 다치고, 운구차가 파손됨
- 이경해 열사 장수군민 3,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장지에안장 **만농연**